

# 광주시 '100년 숲 조성사업' 주목구구

100억원의 협세가 투입되는 광주시의 100년 숲 조성사업이 주목구구 식으로 이뤄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1일 2018년 광주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부지 특성상 하천점용 허가 문제는 충분히 검토되는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해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도 사업예산 12억원

## 작년부터 5년간 100억 투입...2년차 발목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 편성 사장시켜"

허가 협의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명사이탈됐다.

앞서 시는 2016년부터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영산강과 황룡강 57km 구간 강변에 나무를 심기로 하고 첫해인 2016년에는 12억원을 투입해 7.6km구간을 식재했으나, 2년차에 발목이 잡혔다. 보고서는 도심 공원 미조성을 등

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2년부터 올 상반기 까지 시비 1004억원 등 3120억원을 들여 203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푸른길 조성 등은 전국적 우수사례가 됐지만 생활권 공원은 미조성이 54%에 달하고 시설녹지 미조성률도 52.2%에 이르다"며 "수종 갱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어

려움으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에 단기간에 100억원을 투입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애초에 무리한 계획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내년도에는 도시숲 가꾸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제출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될 예산인자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은홍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 "적폐 수사, 시한 없이 철저히"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이른바 '적폐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한 없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국정원과 군의 온라인 여론조작 선거개입 의혹,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의혹 등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이른바 '적폐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시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리얼미터가 적폐사건 수사 시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시한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59.7%, '가급적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32.3%로 분석됐다. '잘 모름'은 8.0%였다.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이전 정부의 적폐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한 없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시한 없이 철저 수사' 응답이 광주·전라(70.1%), 경기·인천(65.9%), 서울(64.8%), 대전·충청·세종(54.3%)과 대구·경북(5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경남·울산(48.5%)에서는 '가급적 연내 마무리'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시한 없이 철저 수사' 응답이 30대(83.5%)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77.2%), 20대(61.5%), 50대(54.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80대 이상(51.7%)에서는 '가급적 연내 마무리' 응답이 많았다.

성별로는 '시한 없이 철저 수사' 응답이 남녀 모두에서 우세한 가운데 여성(65.7%)이 남성(53.5%)에 비해 12.2%p 더 높았다.

뉴스스



함양꽃감 첫 선 경남 함양군은 11일 서하면 송계리 신축 함양꽃감매장에서 임금님에게 진상하던 함양꽃감 초매식을 열고있다. 이날 노부부는 꽃감을 경매장에 출하후 환하게 웃고있다.

## "5·18 북한군 소행" 지만원 관할 이송 신청 '기각'

5·18민중화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으로 왜곡·편향한 국유논객 지만원(74)씨가 5월 단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결국 광주에서 받게 됐다.

1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지씨의 (항소심)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5월 단체 등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은 지난 1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판결이었지만 지씨가 대법원에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하며 일정이 미뤄졌다.

지씨는 당시 '피고(지씨·뉴스타운)들에 대한 지방민심이 피고들을 격려 증오하고 있다', '지민원은 일괄만 보아도 분노가 치민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광주시장·변호사회, 5·18단체 등 지역 파워들이 집결해 지만원 대책위를 만들어 공격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이 양심에 따라 지방의 특이한 폭력과 정지적 힘에 구속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18은 지역감정이 충돌하고 좌우이념이 충돌하는 국민적 이슈다. 이런 재판들을 광주법원이 나서서 배타적으로 독점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부가 황야의 무법천지라는 말, '광주법원이 내린 그 동안의 결정과 판결은 이미 이성과 양심이 실종돼 있다'며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5월 단체는 지씨의 이송 신청과 그 이유에 대해 반박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대법원은 5월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씨에 대한 5월 단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 기일은 다음달 17일 오후 5

시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5월 단체 관계자는 "지씨의 끊임 없는 5·18 왜곡 행위에 적극 대응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드시 5·18 왜곡·편향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8월11일 5·18 단체와 '광수(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로 지목된 박남선(5·18 당시 시민군 상 황실장·63)씨 등 5·18시민군 9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20만원에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원고들은 지씨 등을 상대로 1000만~2000만원의 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또 게시물 발행·배포 등의 금지 명령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의 간접강제도 명령했다. 이에 지씨와 원고측 모두 항소했다.

## '병원 응급실서 행패' 환자 처벌 잇따라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다 처벌을 받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최창훈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여)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7시30분 부터 1시간 동안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이를 말리던 병원 관계자의 목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 씨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 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집기를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당직 의사의 목살을 잡아 흔든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40)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B 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10시52분께 전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손에 난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진료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옷을 벗은 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탁자와 수액 걸이를 집어던지고 당직 의사의 목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신속히 해 주지 않는다'며 혈압계를 부수고 의사를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30대 남성 2명에 대한 항소가 최근 기각되기도 했다.

주춘정 기자

## '편의점 강도' 20대 태국인 긴급체포

목포경찰서는 11일 한밤 중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태국 국적의 A(27)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32분께 전남 목포시 영산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7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편의점 CCTV를 분석해 인상 차이를 특정하고 주변 탐문에 나서 목양동의 한 모텔에서 부속하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문 열린 외제차 노려 금품 턴 20대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노려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최모(2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7일 오전 2시에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김모(51)씨의 벤츠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590만원 가량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외제차는 차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행택 기자

## '2주 동안 10여차례 행패' 60대 주폭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 등)로 강모(6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월 오후 3시30분께 광주 서구 동천동 모 병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30여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병원장(56)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는 등 지난 11월21일부터 최근 2주 동안 술집과 경로당, 병원 등에서 10차례 이상 행패를 부린 혐의다.

## 철제가공 공장 컨테이너동 불...인명피해 없어

11일 오전 11시23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모 철제 가공 공장 컨테이너동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8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컨테이너동 28㎡와 내부에 있던 사무·기전용품이 모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컨테이너동은 공장 휴게·탈의실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 작업에는 소방차 5대와 소방관 28명이 투입됐다.

임행택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 5

광산구